

첫 옥정호 빛꽃축제 대성공

임실군,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 전국 각지서 2만여명 방문

올해 처음 개최된 옥정호 출렁다리와 만나는 '2024 임실 옥정호 빛꽃축제'가 기대 이상의 대박을 터트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축제에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붕어섬이 피지 않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기대 이상의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봄에 만나는 붕어섬, 블라썸(blossom)'이라는 주제로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2024 임실 옥정호 빛꽃축제'는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올해 처음 열리는 빛꽃축제는 다른 지역축제에 비교하면 특설행사장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마련되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임실군과 경찰서, 소방서 등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2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축제장 주요 장소에 빈틈없이 배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봄처럼 화사한 어린이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 공연, 임실필동농악 공연, 개막식과 민들레맨 김희재와 댄스퍼레이드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에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둘째 날에는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운암 라인댄스,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로 줄곧 이어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 출연자가 관객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라이브 공연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로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가족 나들이객을 맞이하는 옥정호 담수어 그리기 체험, 붕어?빛꽃 달고나 체험, 붕어 비빔밥(비빔) 꽃 화분 만들기 체험 등에도 긴 줄이 이어졌다. 먹거리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운암면 한우협회에서 준비한 소머리국밥과 빙어튀김이 최고의 인기를 끌며, 이틀간 1천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옥정호의 대표적 먹거리인 임실N치즈붕어빵과 붕어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바가지요금 문제도 없어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다.

군은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와 쌍안리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확대 운영하고, 교통통제 인력도 추가 배치하여 교통 체증도 크게 완화했다. 축제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빛꽃 만개 시즌을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붕어섬이 만개하는 이달 6일 '2024 옥정호 그라운드?메디오폰도 대회'가 열린 예정이라서 '자전거와 함께 하는 빛꽃축제 시즌?'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군은 빛꽃 만개 기간에 옥정호를 찾는다면 순환도로 가득 핑크빛 붕어 물결이 출렁여서 발길 닿는 곳곳이 포토스팟이 되어 방문만으로도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옥정호 출렁다리와 만나는 '2024 임실 옥정호 빛꽃축제'에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축제에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순창군 옥천골 빛꽃축제, 봄의 정취와 함께 성황리 폐막

문화 행사 및 공연 다채

봄의 파스칼과 화려한 빛꽃의 향연이 어우러진 '순창 옥천골 빛꽃축제'가 순창읍 경천면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펼쳐진 이번 축제는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주최하고 옥천골빛꽃축제 제진위원회(위원장 나현주)가 주관한 행사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

약 1.4km에 걸쳐 펼쳐진 빛꽃 길을 따라 방문객들은 순창의 봄을 만끽하

며, 낮과 밤에 걸쳐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이 펼쳐져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야간에는 빛꽃과 개나리가 어우러진 경관 조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봄의 낭만을 더했다.

축제의 개막일에는 즉석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유튜브 공연, 최우정 예술단의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다음 날에는 순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공연이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했다. 또한, 기념식과 함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아울러, 한소민과 나운하 등 유명 가

수들의 축하 공연은 봄밤의 열기를 고조시키며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특히, 30일부터 시작된 맨손 장어잡기, 색소폰 공연, 난타 페스티벌, 정해진의 공연, 그리고 마술 공연 등 최고 인기 프로그램들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후 7시에 군민 노래자랑 결승전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 오후 9시에 진행된 폐막식으로 축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영일 군수는 "많은 분들이 이번 빛꽃 나들이를 통해 화려한 봄꽃의 향연을 만끽하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문화장 최동현·산업근로장 강순옥·애향장 김택수씨

순창군이 2024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문화장에 최동현(70)씨, 산업근로장에 강순옥(78)씨, 애향장에 김택수(75)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화장 수상 대상자인 최동현씨는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전북 판소리를 집대성한 손꼽히는 판소리 연구가로 알려져 있으며, '순창의 판소리 명창'을 집필하는 등 순창 판소리의 연구와 향유 복원 등 순창 판소리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 수상 대상자인 강순옥씨는 고추장을 제조한 순창장류제조 기능인으로서, 장류 제조 공정 개선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ISO인증, HACCP인증을 취득하여 장류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장류 관련 음식, 소스 개발로 다수의 특허를 받았다. 아울러, 해외박람회 및 국내외 행



최동현



강순옥



김택수

사,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 판로 개척과 고추장 만들기 체험 행사 등으로 장류홍보활동 및 순창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수상 대상자인 김택수(전북도민일보 회장)씨는 동계면 출신 향우로, 순창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순창향교를 비롯해 각종 기부활동은 물론, 고향향우들과의 교류, 단합과 지원에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김택수 회장은 형제를 비롯해 주위에 순창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동참을 권유하여 도내 1위의 실적에 기여했으며, 순창과의 교류에 가교역할로 고향 특산물 홍보와 판매에도 기여하여 애향장에 선정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평생학습관 개강... 6월까지 운영

남원시는 4월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2024년 평생학습관 1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2024년 남원시 평생학습관 1차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이터(learn)저런(learn)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어디나교실이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천연화장품(비누) △업사이클(재활용) △디저트(빵, 쿠키) △K-POP댄스 △우쿨렐레/하모니카 △생활도예·공예 △패션·양재 △드론 △목공기구 만들기 등 28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일부 정원이 미달한 강좌는 개강 주간인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추가 신청은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남원시 평생학습관은 남원시 요천로 1283(보건소 옆)에 위치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 620-5262~3에 문의하면 된다. 지양근 교육체육과장은 "이번 1차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배움의 기지개를 활짝 켜게 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원조회 개최

임실군이 1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실과원소장, 읍면장 및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중 청원조회를 개최했다. 청원조회 후에는 '조직의 승패는 청렴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영상자료를 통한 교육으로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등을 더 쉽게 이해하

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 민 군수는 훈시를 통해 "천만관공 임실시에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으로 어느 해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농업센터,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 2023년 착공했으나 동결기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4월 재착공에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품으로 가공해 농외소득 창출 및 농산물 가치 상승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가공 교육센터 리모델링 및 건식라인 설비, 기계 보완 등이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는 600백만원의 사업비로 습·건식라인 설비와 기계 보완 등을 진행한다.

센터 담당자는 "완공 후 원활한 농산물 가공 및 창업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소상공인 추가 금융지원 나서

남원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남원시는 올해 초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억원을 출연했고 지난 2월 중 출연금액의 10배수인 2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이를 출연해 오는 4월 1일부터 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자격은 남원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기간은 3년 이내이며, 보증은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이자의 3%를 남원시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